

방진회, 부·분회 간담회 개최

방산 현안 문제점 및 애로사항 토의



방산 업체와 방산관련 부처의 상호 격의 없는 대화로 방산 현안사항과 문제점을 토의하고 대책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간담회가 분야별로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13일까지 6회에 걸쳐 국방회관에서 개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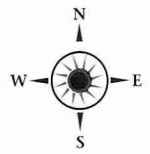
총포(8월 28일), 탄약(8월 30일), 기동(9월 5일), 통신/전자(9월 6일), 항공/유도(9월 11일), 함정과 물자(9월 13일)로 나누어 진행된 이번 간담회는 각 분야별 방산업체 대표와 국방부 획득정책관실, 사업관리관실, 계획예산관실, 군수관리관실, 품관소 사업관리관실, 조달본부 장비부·물자부·원가지원실의 관련담당자들이 나와 방산업체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업체에서는, 총포분야에서 우리 현실에 맞는 비용분석방

법을 개발 적용해 달라는 것과, 탄약 분야에서 수출용 대여탄약 대여료 면제 등 수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건의했다.

기동분야에서는 유지 부품 최소 이윤률 보장 등과, 함정 분야에서 각종 함정류 방산물자 지정 건의, 통신/전자 분야에서 국산화 개발품 사용 보장 건의, 항공/유도 분야에서 방산 제조부문의 이익제도개선 등을 건의했다.

이 외에도 많은 업체에서 다양하고 심도있는 내용을 건의하였고 정부 담당자도 격의없이 답변하여 방위산업의 어려움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으며, 방진회에서는 업체의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종합해 다시 한번 국방부에 전달하기로 하였다.



국과연, 무인정찰기 독자 개발

시속 140km로 주·야간 운용가능

인명 피해 없이 100여km 떨어져 있는 적진 1~2km 상공에서 영상정보를 수집해 적의 동향을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알 수 있는 정찰용 무인항공기(UAV)가 국내 기술진에 의해 개발됐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지난 8월 30일 "지상 1~2km 상공에서 밤낮으로 영상정보를 수집, 지상부대에 전해주는 저고도 정찰용 UAV를 10년간의 개발끝에 시험평가까지 성공적으로 마쳤다"며 내년 중 실전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계에서 6번째로 독자개발된 이 무인항공기는 지상발사대를 통해 발사되어 미리 입력된 컴퓨터 프로그램에 따라 자율자재로 비행하며 임무수행 후 낙하산으로 지상에 착륙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시속 140km로 최대 6시간까지 비행이 가능하며, 전장 4.6m, 폭 6.4m로 대당 가격은 20억원이 넘는다. 무인항공기는 현대전에 필수적인 장비로, 장거리 순항(크루즈) 미사일 개발에도 도움이 되는 기술이어서 선진국들도 앞다투어 개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해상에서 날아오는 적의 대함(對艦) 미사일을

따돌리고 함정을 보호하는 신형 전자전 체계가 국내 기술로 처음 개발돼 내년 하반기부터 전력화된다.

국방과학연구소는 "해상에서 발사, 공격해 오는 적의 미사일과 레이더의 전파를 탐지하고, 유사시 고출력의 방해전파를 발사해 미사일과 레이더를 기만하는 함정용 신형 전자전 체계를 독자 개발했다"고 밝혔다.

적의 함정에서 발사되는 하푼 등 대함 미사일을 기만할 수 있는 이 체계 개발로 우리 해군 함정의 수상, 수중 등 원활한 입체작전이 기대된다.

국과연 기술진이 최근 5년간 연구끝에 개발한 이 체계는 전자방어를 비롯해 전자공격 기능도 함께 갖추고 있으며, 한 국형 구축함(KDX계열) 및 각종 함정에 탑재해 운용할 계획이다.

국과연 관계자는 "이 체계는 적 미사일의 방향을 정확히 탐지하는 순간 방향탐지, 다양한 해상환경에서 미사일 신호를 정밀 식별하는 징표분석, 방해전파를 발사하는 다중빔 배열 송신 등이 핵심 기술이다"고 설명했다.

